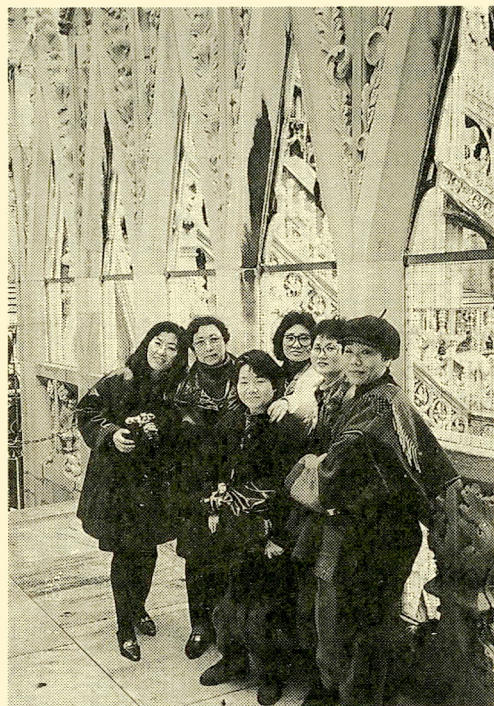


여성건축인들, 탁아소 마련에 발벗고 나서

‘기존공간 활용이 최선책’ 판단하에 구민회관 등 세밀히 검토

턱없이 부족한 탁아소시설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할 묘안이 없을까. ‘시대의 숙제’랄 수 있는 탁아소 마련을 큰돈 안 들이고 기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있다. 바로 <한국여성건축가협회(회장 김화련, 역삼디자인 연구소)> 여성건축인 그룹회원들이다.

이신옥(한국건축가협회 이사), 지순(간삼건축설계사무소 대표), 천병옥(한국건축가협회 이사) 씨 등 이미 잘 알려진 1세대 여성건축인들을 위시해 건축과를 나온 신세대 여성건축인 2백50 회원의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‘부족탁아소문제 해결’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경. 92, 93년을 ‘어린이와 건축의 해’로 정하고 탁아시설의 보급확대



◀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원들은 지난 1월에는 유럽 건축물을 돌아보고 배우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. 평상활동으로는 <주택무료상담> (538-0049)도 받고 있다. (사진은 밀라노 두오모성당에서, 맨 오른쪽이 김화련 회장)

방안과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시간을

조곤 1백여 회원이 방대한 작업에 뛰어들었다. 해결할 묘안을 얻기 위해 맨 처음 착수한 일이 우선 서울시 전역의 탁아시설 실태를 상세히 조사·연구하는 것. 한번쯤 결혼과 탁아문제로 ‘주저앉아야 했던 경험’도 있는 여성건축가 1백명이 11개 팀으로 나뉘어 22개 각 구에 있는 1백개가 넘는 국공립, 민간탁아소를 방문해 대안마련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살이 모아 왔다.

김화련 회장은 “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실내화 사용여부, 취침방법과 위치, 부엌이용횟수, 냉난방 방식, 목욕시설 등 각종 시설조사와 시설에 대한 불만사항, 가장 바람직한 시설 대안마련이었습니다. 이 내용을 12월호 회지 <여성건축가>에 알려 장기사업으로 펼칠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 한달 반에 걸쳐 실시한 이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무리 작업

탁아소부족현상이 급선무라고 파악됐다.

그리고 현재 건축되어 있는 관공서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으로 신축됐거나 비교적 규모가 큰 구민회관의 시설활용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 보았다.

그 결과 동사무소 2곳, 구민회관 1~2곳을 샘플선정했다. 남은 작업은 각각의 공간 특성에 맞도록 탁아소활용 ‘도면’을 설계하는 것과 이러한 공간 활용방안이 확산되도록 촉구하는 작업이다.

이 작업에 참여한 신혜경 교수(인하대 건축과)는 “우리가 제시한 것은 기존공간을 탁아소로 활용해보자는 계획이기에 앞으로의 도면화작업과 이에 대한 인식 공감대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”며 남아 있는 작업이 더 많은 셈”이라고 말하고 있다.

여성건축인들은 공동작업에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탁아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계층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한다. 저소득층에서는 필요성에 절대공감하는 편이나 중산층 이상의 경우는 되레 “탁아소보다는 조부모에게 맡기는 게 낫다”는 등 부정적이었던 것. 따라서 탁아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 진전돼야한다는 점과 중·고교 등 학교시설에 ‘직장탁아’를 확산시키는 일이며 방치상태에 있는 방과후아동 지도를 위한 ‘애프터스쿨(after school)’ 활용방안 마련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갈 계획도 세워놓았다.

<박혜숙 기자>

여성신문 만평

반쪽이

